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3호 【루계 제23175호】 주체99(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선군조선의 자랑찬 창조물—대계도간석지를 일떠세운 애국자들의 영웅적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표창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대중적영웅주의와 결사관철의 정신, 완강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함으로써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표창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최룡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한정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진경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기사장
김명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리 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용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류영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경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길영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박병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장대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기사장
지송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라성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정룡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수
리영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만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기사장
황태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리호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명 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정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중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초급당비서
박영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용접공
량해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굴착기운전공
류용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초급당비서
남준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직장장
독고윤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정은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직장장
김원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직장장
차영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지배인
홍성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작업반장
한 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조명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문순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김응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부원
김승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인수원
김윤호 평안북도당위원회 부장
계병운 평안북도당위원회 부장
장춘명 평안북도인민위원회 건설감독소 감독원
전철례 함흥수리동력대학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김봉길 국토환경보호성 산하단위 굴착기운전공
리광호 국가검열성 책임부원
홍준철 국가검열성 책임부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수여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이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옹근 한개 군의 면적과 맞먹는 부침땅을 얻어내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냄으로써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이 이룩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받은 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우희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한용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세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김철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송일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기사장
김영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최용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박일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한기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호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정응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영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방봉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신명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진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시공부원
장시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변룡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장성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굴착기운전공
최성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사
조일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김광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정봉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김상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운전수
강수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운전수
양권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비서
리정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부부장
서원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장대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부지배인
김응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독고원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량명철 염주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문동철 평안북도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문기 간석지건설지도국 부국장
최용귀 국가검열성 부장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다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이 수여되였다.

로력영웅칭호

최영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지배인
백근명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배룡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김종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용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리상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안성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한정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성옥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지배인
신원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굴착기운전공
한광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직장장
현근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김성남 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근영 간석지건설지도국 간석지설계연구소 기사장
오승인 국토환경보호성 산하단위 굴착기운전공
구룡원 국가검열성 책임부원

2 면 으 로 계 속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표창식 진행

【신의주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짧은 기간에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웠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완공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한 일대 사변이다.

표창식이 10일에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최종건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국영 평안북도당위원회 비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와 련관단위 일군들, 건설자들이 표창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을 양형섭동지가 전달하였다.

표창식에서는 대계도간석지를 조국의 만년재부로 훌륭히 건설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고 선군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는데 크게 공헌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이,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 **김일성**상이 수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표창장,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 국기훈장 제1급, 로력훈장, 국기훈장 제2급, 국기훈장 제3급, 공로메달이 3 000여명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수여되였다.

표창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대계도지구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물이 일떠서고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간석지건설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선군조선의 위용 떨치며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선 대계도간석지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수여

1 면 에 서 계 속

김일성청년영예상

로재경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곽은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수
홍정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사
김진옥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공 훈 건 설 자

전봉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공 훈 과 학 자

한용수 국가과학원 건설건재분원 간석지연구소 연구사

공훈자동차운전사

김룡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사
장홍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사
리송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홍정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국기훈장 제1급

강성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배창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실장
리인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부지배인
홍종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초급당비서
장명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지배인
곽룡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부부장
최재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장
홍성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김순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김종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김철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박명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과장
백정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부원
김병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보호물자공급소 소장
리종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직장장
신광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박 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방덕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최남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최원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김시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김명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정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강성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선반공
라상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정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병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책임부원
윤성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김금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장정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정명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리영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홍수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전공
림영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고인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승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박농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공
김성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용접공
홍순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굴진공
한경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황명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길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차일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조용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종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박명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병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안영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수
백운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명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문학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광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한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신경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직장장
리양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오성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소성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영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성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봉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부원
리석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직장장
최락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직장장
정학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직장장
림정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백광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한길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최룡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조운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최영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건설공
박문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운전사
장영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용접공
리광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작업반장
장광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김성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김상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작업반장
김응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성형공
리영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기사장
김의경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직장장
김석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부원
리영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고린흥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최흥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리창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공
김영범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제관공
허봉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건설공
오병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안영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수리공
조관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기사장
정태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직장장
박광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리송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완성공
림길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공
황성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건설공
문룡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사
리창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용접공
황 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계도구조물관리소 작업반장
한현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백대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자재조달원
박창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착암공

로 력 훈 장

조창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보호감독원
장정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성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광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현택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황운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공
김춘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림승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장석공
리동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공
신익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수리공
김승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강정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홍의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창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정락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목공
최정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발파공
김은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수
김룡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전필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성형공
리종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부지배인
김리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정량원
김창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능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서경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권동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명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현석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원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길용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광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정창봉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수리공
리상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공
신영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명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장히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한용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신덕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목공
김원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상봉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로만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박근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영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류 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목공
고영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철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목공
강영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서재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명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수리공
방일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덕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승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강창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병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자
리영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윤성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찬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광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재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임병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창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성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운전수
엄병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수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준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규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부지배인
오익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정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한상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림영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강종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춘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수리공
최 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로동자
정하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정만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제재공
서정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김진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오래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림상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강승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작업반장
김래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기사장
원영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철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신춘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병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최상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박춘봉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리원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건설공
최학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구조물공
리정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용접공
조성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부원
안태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과장
장기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과장
장성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과장
최균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부원
최동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부원
리천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부원
리광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부원
최영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주물공
정광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기관장
김봉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윤기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갑판장
구용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건설공
리동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건설공
문영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운전사
고성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제관공
윤덕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제관공
김남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제관공
정리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제관공
김정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원
초용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김광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목공
오천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제재공
김경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자재조달원
리원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용접공
허일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반공
리만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박사업소 선장
차도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목공
리도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조승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서원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자재조달원
최석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장창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건설공
박영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주택건설사업소 정량원
리관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성형공
곽룡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부원
김응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용접공
최 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자재조달원
한원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성형공
최 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성형공
김윤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신의주간석지부재공장 성형공
최문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부원
최명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선반공
김희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수리공
최득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수리공
리응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수리공
김남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건설공
최기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용접공
최창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수리공
한재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용접공
백문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선반공
계병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로동자
김소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림춘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전공
정선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선반공
김광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조립공
허승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리보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 운전사
김재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부지배인
유종훈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부원
김명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작업반장
조영학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목공
정선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수리공
백연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건설공
황명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미장공
백의웅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수리공
최승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선반공
김태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공
전동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공
박정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공
리성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용접공
주영성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로동정량원
박승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목공
조화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제관공
고용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운전공
리지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계도구조물관리소 구조물공
주윤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계도구조물관리소 구조물공
장철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계도구조물관리소 구조물공
리용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대계도구조물관리소 구조물공
리종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창고원
리영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자재조달원
리영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리중식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설계원
고학길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부원
현기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리영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미장공
김병덕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윤성찬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황영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수리공
최강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선로공
김정병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채경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1병원 부원
리신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리명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공
리성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목공
최봉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전공
장경룡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1병원 초급당비서
송원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리광조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인수원
윤창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김기선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굴진공
오춘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발파공
전재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김혜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리영복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창고원
김선혁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인수원
리미하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간석지탄광 지배인
전봉섭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간석지탄광 채탄공
리일남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운전사
백승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자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안주시의 지방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안주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경공업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는 당창건 65돐을 앞두고 진행되는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 이번에 진행되는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깊이 인식시키고있다. 한편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가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것으로써 당대표자회를 의의깊게 맞이하도록 하는데 선전선동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그리하여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올해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청천강피복공장, 안주직물공장에서는 이미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단위의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 종업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행정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기업관리를 짜고들고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비관리를 잘하고 앞선 기술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이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확대하여나가고있다.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는 올해의 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단위들의 모범을 본받아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안주옷공장, 안주식료가공공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이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는 능숙한 정치활동가, 적극적인 선동대가 되며 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안주장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당조직들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단위의 설비들에 대한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도록 하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힘을 넣고있다. 안주식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시안의 지방공업공장 당조직들에서는 삼일포특산물공장에서 피여난 불꽃이 단위에서도 타오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시안의 인민소비품생산자들은 제품마다에 인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1차소비품생산에 힘을 집중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값눅고 질좋은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사회주의상업이 부흥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고있다.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적극 탐구하고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들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생산자대중의 사상발동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시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는 사실 방대하고 아름차다. 하지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부쩍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안주신발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누구나 비약이 룡마를 타도록

합흥모방직공장 당위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최첨단을 돌파할수 있는 비약의 룡마가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당일군들이 대중을 기술혁명수행에로 어떻게 방법론있게 이끌어주는가 하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송풍기로 로안에 바람을 불어넣어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듯이 정치사업의 된바람을 일으켜 당이 지펴준 대고조의 불길이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정초 공장의 한 일군이 중요설비의 부분품인 사각가락을 평판가락으로 개조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제기하였을 때의 일이였다.

일부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착상은 좋지만 기술적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비서 박옥희동무는 말하였다.

《사각가락을 평판가락으로 개조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해주겠거니 하고 앉아있을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과학기술성과도 능히 우리의것으로 만들수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술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에게는 공장에서 금속침포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이 벌어지던 때의 사실이 떠올랐다. 그 기술혁신안을 빨리 받아들이는것은 공장의 생산과 관련한 사활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안을 기어코 성공시켜야 한다는 당일군의 결심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당일군은 금속침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기술자들을 깨우쳐주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가 벌어졌다. 그 나날 당일군은 기술혁신안실현에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도서도 탐독하고 여러가지 걸린 문제들도 풀어나가면서 기술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달려나갔다.

첫 시운전에서 실패하였을 때에도 그는 첫술에 배가 부르겠는가고 하면서 기술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바로 당비서가 기술혁신의 앞채를 메고나섰기에 금속침포를 도입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지 않았던가.

이런 사실을 돌이켜보면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기술혁명수행의 기수가 될 결의를 다지게 되였다.

온 공장에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부기사장 안령화동무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면서 불과 한달동안에 사각가락을 평판가락으로 개조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모두가 기술혁명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나갔다.

결과 공장에서는 올해 상반년에만도 수십건의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도 최첨단돌파전에 떨쳐나섰다. 소조원 박옥경동무는 공장의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변사처리장치를 전열식으로 개조하였으며 다른 소조원들도 첨단기술을 도입한 길이측정장치와 폐수정화장치를 완성하여 생산에서 혁신과 비약의 불길을 지펴올릴수 있었다.

이런 성과에 토대하여 공장의 기술자들은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비날론섬유를 가공할수 있는 견절방적직장의 기술개건에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었다.

본사기자 송창윤

옳은 결심이 낳은 귀중한 열매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제강국건설의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임무는 자못 크다.

대홍단감자가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기술혁명수행의 나날에 발휘한 창조적인 일본새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것을 새겨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몇해전 공장에서 담차게 내세운 기술혁명결의목표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군적으로 감자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조건에 맞게 공장에서는 현존생산능력을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현존생산능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산되는 감자들을 제때에 허실없이 처리할수 없을것이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열린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하였다.

초급당비서는 그 누구를 쳐다보거나 어디서 도와줄것을 바라지 말고 자체의 힘으로 현존생산설비들을 보다 능률적으로 개조하자고 호소하였다.

일군들은 그의 호소에 공감은 하면서도 선뜻 결심을 내리기 주저하였다.

이러한 일군들에게 초급당비서는 힘을 주었다. 그는 공장에 당의 품속에서 배우고 실천속에서 단련된 기술인재들이 적지 않다, 그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들고 창조적열의를 한껏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공장에서는 기사장 림춘남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해당한 기술력량이 무어지고 설비개조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총시운전이 실패하였을 때였다. 얼마 안있어 당면한 감자가을전투가 시작되는 조건에서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생각은 무거웠다.

이제 무슨 수로 그 많은 감자를 처리하겠는가. 이제라도 본래대로 설비들을 조립하여 생산을 보장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선택의 갈림길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책임일군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때 일군들의 결심이 중요하다.

지배인 박국필동무의 목소리가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리며 울렸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과연 무슨 힘으로 현대적인 초고전력전기로를 자체로 만들어냈는가. 당이 바란다면 무조건 해야 하며 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기어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것도 그런 불굴의 정신력이다.

격동적인 현실과 밀접히 결부하여 격식없이 들이대는 일군들의 정치사업은 설비개조전투에 떨쳐나선 기술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달구어주었다.

그리하여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보다 능률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생산능력을 이전보다 1.5배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옳바른 결심이 낳은 결실이였다.

이것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확고한 주견을 세우고 일판을 드세차게 벌려나가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영길

진심은 진심을 낳는다

개성시 송악산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개성시 송악산피복공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하기에 공장의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불같은 열의가 끓어넘치고있다.

이들의 숭고한 도덕의리는 리상적인 당, 행정배합으로 대중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에로 적극 떠밀어주고있는 송악산피복공장 일군들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에 의하여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러면 이 공장일군들의 당, 행정배합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 마음을 주어야 남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

공장초급당비서 허경복동무와 지배인 박찬보동무는 단위책임일군들인것으로 하여 자주 그리고 많은 시간을 마주앉는다.

공장의 생산과 계획, 로력, 자재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마주앉아 론의하는 문제는 참으로 많다.

그렇게 많은 문제를 토론하면서도 이들의 견해는 언제나 일치하다.

견해의 일치는 그대로 사업에서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의 일치는 저절로 생겨나는것이 아니다.

마음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하다면 그들은 마음을 어떻게 맞추며 일하고있는가.

이 공장초급당비서의 말을 빌면 자기는 지배인과 대상할 때 항상 자신의 진심을 먼저 터놓군 한다고 한다. 속마음을 터놓고 가식없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진심이 오가고 풀지 못할 매듭이란 없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당사업을 하는 당일군이라면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응당 자신의 진심을 먼저 주는데 습관되여야 한다고 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먼저 자기의 진심을 주어야 남의 마음을 얻을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러니 사람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을 하는 당일군이 먼저 진심을 주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공장 당일군과 행정일군관계가 그에 대한 좋은 실례로 된다. 언제인가 지배인이 당조직과 미처 토의없이 생산로력을 다른 사업에 돌린적이 있었다. 물론 공장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생산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였던것이다.

좀더 로력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면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당조직의 의견에 대해 지배인의 립장은 그때 어떠했던가.

흔히 사람들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 충고를 주면 마음 한구석에나마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배인이 말하기를 그때 자기의 심정은 고까움보다도 고마움이 더 앞섰다고 하였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초급당비서의 심정이 진심이라는것을 폐부로 느꼈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그러니 당일군이 먼저 진심을 주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으로 되는것인가.

이렇듯 뜨거운 믿음과 진심에 기초하였기에 이 공장의 당, 행정배합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공고해지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황철웅

대계도간석지에 새겨진 로동당시대의 영웅서사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투쟁(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입니다.》

사나운 날바다를 길들여 조국의 대지를 넓히고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투쟁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애국의지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일 때 이 땅 그 어디서나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방조제를 잇기 전에는 물을 밟지 말자!

주체86(1997)년 8월 21일, 100년래의 커다란 해일이 우리 나라 서해안의 전반적지역을 강하게 들이쳤다. 수십시간동안 지속된 강한 태풍과 무시무시한 파도는 대계도간석지의 방조제들에 수백m의 파렬구를 내였다. 염주군 대다사도와 가차도를 련결하는 1호방조제, 가차도와 소연동도를 련결하는 2호방조제, 소연동도와 대계도를 련결하는 3호방조제, 대계도와 철산반도의 등곶을 련결하는 4호방조제로 빙 둘러막혔던 대계도간석지로 짠물이 거침없이 흘러들어 기름진 땅을 삼켜버리였다. 얼마나 피어린 투쟁의 력사가 새겨진 땅인가. 간석지건설자들은 억이 막혀 주먹으로 땅을 쳤다.

바로 이때 대계도간석지의 해일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괴된 방조제를 복구하고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였다는 소식이 건설자들에게 전해졌다.

대계도간석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고 귀중한 조국의 재부이다. 한치의 땅도 잃을수 없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결심이고 의지임을 건설자들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끊어진 방조제들을 다시 잇기 위한 방대한 전투작전이 펼쳐졌다. 고난의 행군시기여서 자동부림배도 자동차도 얼마 안되였으며 기름도 철근도 부족하였다. 건설자들에게 있는것이란 함마와 정대뿐이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였다.

《방조제를 다시 잇기 전에는 물을 밟지 말자!》

파괴된 방조제우에서 울려퍼진 이 우렁찬 함성은 삽시에 온 공사장을 휩쓸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꺾을수 없는 의지로 되였다.

하지만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간고하였다. 무엇보다 돌이 부족했다. 소연동도와 대연동도, 가차도, 대계도채석장들에서 함마와 정대, 착암기를 틀어쥔 건설자들이 무쇠같은 주먹을 내흔들었다. 전화의 나날 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총과 탄약을 생산보장한 로동계급의 정신, 불타는 고지에 포탄을 이고 치달아오르던 남강마을녀성들의 군상이 간석지건설장에 그대로 펼쳐졌다.

대계도에 자리잡은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채석장에서의 도갱굴진은 말그대로 백병전이였다. 갱안에서 등잔불로 정머리를 비쳐가며 해야 하는 함마질은 힘겨웠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일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일단 함마를 잡으면 500번은 휘두르고서야 정대를 엇바꾸어쥐는 청년들의 승벽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한발파를 하고나서 갱안에 찼던 가스가 빠지자면 적어도 30분, 그 30분이 얼마나 더디게 흘렀던지…

성미급한 한 청년이 가스가 빠질 때까지 기다릴수 없다고 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우고 갱안으로 뛰여들었다. 그뒤를 교대성원들 모두가 따랐다. 뒤미처 울려나오는 착암기소리, 함마질소리, 또다시 둔중한 발파소리…

채석장의 1분1초는 이렇게 흘러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설자들의 모습은 적의 화점을 향하여 내달리던 영웅전사들을 방불케 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이 벌린 200여일간의 결사전은 또 얼마나 영웅적인 투쟁이였던가. 하루 4~5개씩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콩크리트부재를 10~12개씩 만들어 단 15일동안에 필요한 전량을 생산한 그 놀라운 속도, 간석지방조제에 위험구간이 조성되면 보강콩크리트치기를 자진하여 맡아 순식간에 해제낀 그 눈부신 활약은 간석지건설장에서 샘처럼 솟아난 하많은 위훈담의 일단이였다.

결사관철을 생명으로 지닌 바다의 정복자들의 투쟁방식은 오직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이였다. 있는것보다 없는것이 더 많았던 간석지건설장에서는 항일의 나날 밀림속병기창에 나래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붉은기의 퍼덕임처럼 세차게 살아숨쉬였다.

채석장의 전투원들은 못쓰게 된 불도젤기관으로 소형압축기를 만들어 착암기를 가동시켰고 돌상차장의 전투원들은 살을 에일듯 한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침몰된 배의 철판을 뜯어내여 상차대를 만들어 전투를 보장하였다. 대형방틀제작에 쓰일 철판이 부족하면 참나무로 방틀을 짜내고 큰돌들을 묶는데 필요한 철선이 없으면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해결한 그 피타는 노력을 보통의 사고방식으로 과연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그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평안북도간석지건설자들은 우에서 대주면 더 좋고 안 대주어도 제힘으로 한다는 높은 각오를 가진 동무들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언제나 간석지건설자들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전사들의 불타는 맹세였다.

기적을 낳은 불굴의 정신력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킨 대계도간석지 3호방조제마감막이공사는 간석지건설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을 동반한 영웅적결사전이였다.

1, 2호방조제복구가 끝나고 바다물이 전부 한곬으로 쏠린 결과 좁은 물목으로 밀물과 썰물때마다 한번에 2억 5천만이상의 엄청난 바다물이 초당 7~8m의 속도로 드나들었다. 세찬 물살은 무게가 여러t 되는 돌묶음과 대형부재들도 순간에 집어삼켰다. 그 자연의 광란으로 초기에 350m였던 마감막이구간이 450m로 늘어나고 바닥은 수십m나 깊이 패였다.

수십일간이나 일진일퇴가 거듭되던 그때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돌아본 외국의 한 간석지건설전문가는 《달의 인력을 차단하여 밀물과 썰물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저 방조제를 막을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처럼 어려운 때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힘을 주신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계도간석지 방조제마감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해주시고 많은 건설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은 기적을 낳는 열정의 샘이 되고 무한대한 정신력의 밑뿌리가 되여 간석지건설자들의 애국열의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였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못할 일이 없다!

격동된 심장마다에 이 불변의 신념을 새겨안은 건설자들모두가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 불굴의 정신력은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길로 활활 타올라 3호방조제마감막이공사의 나날 세계간석지건설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우리 식의 새로운 공법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지난해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주 신통하다고, 기발한 착상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륙상쇠그물돌자루투석기공법과 큰돌묶음식공법,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게 한 이 공법들이 결코 순탄하게 태여난것은 아니였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파도사나운 방조제머리에서 실머리를 찾기 위해 밤낮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린 련합기업소기술일군들의 고심참담한 노력, 불편한 몸으로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은 책임일군의 완강한 투지, 그것은 몸이 열조각, 백조각 난대도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어이 승리의 보고를 올려야 한다는 철석같은 의지, 강의한 정신력의 분출이였다.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기적을 낳았다. 채석장에서는 15만산, 10만산, 5만산, 2만산 등 크고작은 발파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여 수많은 막돌과 버럭이 날바다로 줄기차게 실려나갔다.

마주 전진하는 방조제량끝에서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이 4대의 투석기를 주야간 만가동시켜 교대당 자동부림배 10척의 적재량과 맞먹는 30개의 쇠그물돌자루를 투석하고있을 때 바다에서는 해상전투원들이 종전의 하루 한탕으로부터 두탕으로 투석회수를 2배로 늘이는 눈부신 실적을 기록하였다.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막돌상선시간 한척당 20분으로써 인력상선에서 최고기록을 세웠다. 결사의 의지로 끓는 심장들은 기적을 안아왔다.

주체94(2005)년 6월 11일, 3호방조제의 마지막파렬구를 메우며 육중한 돌자루들이 바다로 떨어졌다. 삽시에 돌무지가 솟구쳐오르며 수십리방조제가 이어지고 바다물은 흐름을 멈추었다.

순간 온 대계도지구를 진감하며 터져오른 만세,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자연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한 기쁨과 긍지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기어이 지켰다는 행복과 영광의 환호성이였다.

그렇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은 광란하는 대자연과 인간의 정신력의 대결장이였다. 그 대결전에서 간석지건설자들은 초인간적힘으로 자연을 길들여 바다를 밀어내고 내 조국땅을 넓히는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정신력의 강자가 되였다.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이 한치한치 피땀을 고이며 이어놓은 간석지방조제는 우리 장군님의 뜻이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밀어내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결사관철의 보루, 강위력한 정신력의 성새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대계도간석지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력영웅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기념비적건축물창조에 바쳐진 값높은 한생

백두산건축연구원 건축가였던 인민설계가 정명호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건축가들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수령의 구상을 드팀없이 실현하여야 하며 건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오는 만수대언덕, 대동강의 푸른 물이 한눈에 안겨들고 모란봉의 꽃향기가 한껏 풍겨오는 그 사연깊은 언덕에서 좀처럼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건축가가 있었다.

때없이 찾게 되는 곳이지만 그날은 류달리 정명호동무를 깊은 회억에 잠기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중심에 모시고 그 주변에 건립된 대기념비며 수령님의 동상과 한축선상에 웅장하게 일떠선 당창건기념탑, 붉게 타오르는 봉화를 탑신우에 올려놓고 하늘높이 치솟은 주체사상탑, 펄펄 나붓기는 붉은기에 휩싸안긴 항일의 투사들이 오늘도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대성산주작봉의 혁명렬사릉…

건축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수도 평양에 불멸의 대기념비들을 일떠세우던 긍지롭고 보람넘치던 그 나날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다음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조국을 떠날 때에도 정명호동무는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조국의 거리와 마을들은 또 얼마나 많은 감회를 불러일으키는것인가.

그의 소학교시절에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길속에 재더미로 덮인 사랑하는 땅이였다. 성천강기슭 움막안의 등잔불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자그마한 손으로 흙덩이를 빚어 《집》을 만들던 자기가 온 나라가 다 아는 건축가로 자라나게 될줄을 낳아키운 부모들조차 알지 못하였다.

군사복무를 마친 그가 평양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하고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였을 때의 기쁨은 형언할수 없었다. 앞으로 커서 집이나 몇채 지을 소박한 꿈을 간직했던 자기에게 희망의 나래를 달아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며 대기념비적건축물창조의 활무대를 펼쳐준 어머니당의 고마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커만 졌다. 그가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한것도 그리고 설계도면의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친것도 당의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대상에 대한 설계현상모집에서 1등을 하여 머리흰 설계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는 여러 대상설계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건축가로서의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20대에 벌써 만수대언덕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수령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그후 주체사상탑주설계가, 개건확장되는 대성산혁명렬사릉과 당창건기념탑의 대상책임자로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로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불같은 정열을 기울였다.

(잊지 못할 대기념비적건축물창조의 나날에 절감한 우리 장군님의 건축학적예지는 얼마나 비범했던가.)

끝없이 이어지는 추억속에는 당창건기념탑을 일떠세우던 나날도 있었다.

당창건 50돐을 맞으며 건설되는 당창건기념탑의 대상책임자로 임명되였을 때 정명호동무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어머니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기념비를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당창건기념탑건설을 발기하시고 탑의 위치까지 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꽃피우기 위해 그는 낮에 밤을 이어가며 사색과 탐구를 기울였다.

정명호동무를 비롯한 설계집단이 원형띠의 내부를 동부각상으로 형상하고 외부를 어떻게 장식할지 몰라 안타까와할 때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구호를 부각하여 탑의 성격이 두드러지도록 하신분도, 마치와 낫과 붓의 머리부분을 금속재질로 처리하려고 하였을 때에는 아래부분과 같이 돌로 형상하여도 일없다고 깨우쳐주시면서 탑의 세부적인 구성요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절세의 위인의 독창적인 건축미학사상에 경탄을 금치 못할수록 정명호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기념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하기 위해 분발하였다. 탑주변의 공원화, 수림화를 실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게 한데도, 배경살림집을 건설하고 《백전백승》이라는 글발을 세워 당을 결사옹위하며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보여주게 한데도 그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이 슴배여있었다.

준공을 앞둔 당창건기념탑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상징인 기념탑을 훌륭히 완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실 때 가슴에 넘쳐났던 환희와 격정을 언제나 소중히 안고 사는 정명호동무였다. …

(위대한 스승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을 떠나 건축가로서의 영예와 보람을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그를 태운 비행기는 현대건축에서 제노라고 하는 유럽의 한 나라에 착륙하였다.

다음날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가밑에 진행되는 국제건축과학토론회장으로 들어서던 정명호동무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 《건축예술론》이 그 나라 말로 번역되여 전시되여있었던것이다. 절세의 위인의 건축미학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여있는 로작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해하는 토론회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건축의 영재를 모시고 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눈굽이 찌릿해졌다.

이윽고 정명호동무가 연단에 나섰다. 《조선의 건축예술, 건축의 내용과 형식, 전통과 계승》의 제목으로 주체적인 건축사상에 대하여 해설하는 그에게는 주체사상탑을 일떠세우던 나날이 되새겨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평양에 주체사상탑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을 때 정명호동무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였다.

(평양을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도시로 전변시키기 위한 우리 장군님의 구상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

탑을 민족적인 석탑형식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봉화탑으로 형성할데 대한 문제, 기본주제군상을 당마크를 추켜든 3인군상으로 하며 부주제군상들을 형상하는 문제, 정각을 세우며 대동강에 대형분수를 설치하는 문제 등 탑형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구성요소들과 장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형성방향을 가르쳐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탑의 위치선정을 위해서 바치신 심혈은 또 얼마나 뜨거운것이였던가.

설계가들과 창작가들은 그 위치를 련못동에 잡으려고도 했고 문수거리와 송신지구에 잡으려고도 했었다. 그러다보니 주체사상탑을 도시건축형성에서 총체적인 요소로가 아니라 부분적인 요소로 만들어놓고있었다.

그들의 의견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탑을 인민대학습당 축상인 대동강건너편강반에 세워야 한다고, 그래야 수도의 면모도 더욱 살아나게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정명호동무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쳤다. 주체사상탑 위치를 정치사상적의의에 있어서나 도시형성과 자연조건으로 보나 둘도 없는 명당자리에 정해주신 절세의 위인의 천재적인 건축적예지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푸른 물 출렁이는 대동강반에 붉게 타오르는 봉화를 머리에 이고 하늘높이 솟은 주체사상탑과 키돋움하며 솟구쳐오르는 대형분수의 장쾌한 모습이, 고유한 형상적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대칭성에 의하여 전일적인 조화를 이루고 보다 조형예술적으로 세련된 매 구성요소들의 전경이 화폭처럼 안겨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으신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해 정명호동무를 비롯한 설계가들과 창작가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사색과 정열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사상의 탑인 주체사상탑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대기념비로, 주체건축의 대걸작품으로 높이 솟아 빛나게 되였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건축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탑을 실례로 들어가며 론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정명호동무의 목소리는 크나큰 감격에 젖어있었다.

《조선의 수도 평양에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때로부터 지난 30여년간 기념비적건축물창조사업에 참가한 나는 평양에 건립된 시대적인 대기념비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슬기로운 김일성민족만이 창조할수 있는 인류건축의 보물고라는것을 긍지높이 자랑합니다.》

순간 1 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박수소리는 회의장을 진감하였다.

비행기는 평양을 향하여 날고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한생을 더없는 긍지와 보람속에 더듬어보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청춘의 열정과 기백이 용솟음쳤다.

그는 70살을 눈앞에 둔 몸이였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기념비적건축물의 설계를 하나라도 더 완성하기 위해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불치의 병이 그렇게 빨리 자기를 쓰러뜨릴줄 알지 못하였다.

림종을 앞두고 그는 평양건설건재대학 박사원에서 공부하는 둘째아들 광일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못 다한 일을 네가 꼭 대신해주기 바란다.

본사기자 김승표

삭주군 읍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영광의 땅을 빛내여가며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삭주군 읍협동농장은 모든 면에서 군적인 본보기단위로 소문이 났다.

벼포기들이 우적우적 소리를 내며 키돋움하는 포전들을 돌아보아도 좋고 산기슭에 아담하게 꾸려진 소재지와 작업반들에 가보아도 좋다. 성실한 주인들은 고향땅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고 기름진 대지로 가꾸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지지도단위를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농장에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가 승벽내기로 벌어지고있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초급당일군인 최선호동무가 관리위원장 안병수동무를 찾아왔다. 읍지구뿐아니라 대담하게 주변지역들에도 나가 거름원천을 찾아내면 거름생산을 일정대로 내밀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이야기하는 초급당일군을 바라보는 안병수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10여년세월 늘 앞채를 메고 달려온 미더운 당일군,

지난해 150일전투시기 일군들이 포전을 하나씩 맡아서 관리할것을 발기하고 안해와 함께 새벽이슬을 맞으며 앞장에 선 사람도, 축산작업반을 새롭게 꾸릴 때 어버이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여러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그 경험을 배워온 사람도 다름아닌 그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도 령도업적단위인 우리 농장이 한번 본때있게 내달려봅시다.》

초급당일군의 목소리는 안병수동무의 심장을 울리였다.

40여년전 한여름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농장을 찾으시여 한치의 부침땅도 귀하다고 하시며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던 강물을 돌려 많은 부침땅을 찾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후에도 여러차례 농장을 찾으시여 농업생산과 농장원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깊이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길 때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영광의 땅의 주인이 되여 당의 의도를 받드는 투쟁의 맨 앞장에 설 의지를 가다듬군 하였다.

백두산위인들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은 해를 이어가며 질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포전을 걸구어왔으며 해마다 알곡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농장의 여러 건물들도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답게 그 모습을 일신시키였다. 축산작업반과 제1, 3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도 작업반건물들과 창고, 집짐승우리 등을 훌륭하게 꾸리고 잘 관리하고있다.

자나깨나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일 일념안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올해에도 높이 세운 목표대로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들에 냈으며 수백m에 달하는 강하천정리와 수백정보의 토지정리를 동시에 내밀어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즈음 삭주군 읍협동농장의 포전들은 더욱 끓어번진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안고 일군들도 농장원들도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리경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10일 황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총련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65돐 기념우표 발행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해방 65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기념우표(소형전지 1종, 묶음전지 1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기념우표들의 웃부분에는 《조국해방 65돐기념》, 《주체34(1945) 주체99(2010)》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소형전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태양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며 환희와 격정에 넘친 항일혁명투사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력사적화폭으로 펼쳐보이는 조선화 《조국해방을 앞둔 2월의 명절》이 반영되여있다.

조선화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항일의 혈전만리》, 《평양의 새봄》, 《력사의 그날 밤》, 유화 《조국의 진달래》와 개선문을 형상한 우표들이 있는 묶음전지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기념우표들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총련교육일군대표단 만경대방문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박재수 조선대학교 조선어연구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교육일군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니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한편 대표단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참관하였다.

교육환경을 보다 훌륭히

선천군학생소년회관에서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자체의 힘으로 교육환경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회관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자체의 힘으로 부족되는 소조실과 부속건물을 일떠세울 목표를 내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회관책임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드높은 열정과 헌신속에 회관의 모습은 날마다 달라지고있다.

로농통신원 차춘건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황영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도착

【평양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린 씨노디움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가 1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더 많은 명작을

조선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에 대한 반향

위대한 시대는 훌륭한 명작을 낳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영화예술을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며 사람들의 혁명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당의 령도를 따라 천만군민이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또 한편의 훌륭한 예술영화가 나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기쁨으로 된다.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 살며 투쟁하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깨끗한 충정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준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는 선군의 위대한 현실이 낳은 시대의 진실한 화폭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자라는 수천수만의 총대가정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비낀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가 거둔 창작성과는 우리 영화예술부문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새 세기 주체영화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창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우리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오늘 시대의 요구에 맞고 인민의 지향에 맞는 우리 식의 명작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영화창작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훌륭한 예술작품은 위대한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의 성과적창작을 계기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화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1970년대의 창작기풍과 창조정신을 영화창조활동에 적극 구현하여 오늘의 벅찬 시대감정을 반영한 선군시대의 걸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새 세기 주체영화예술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다.

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 조경순

선군시대 작가의 사명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벅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는 시기에 선군시대 참된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준 훌륭한 영화가 태여난것은 참으로 의의깊다.

오늘 시대와 혁명발전에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더우기 영화예술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대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시대와 인민대중의 이러한 요구에 비추어볼 때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영화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뿐만아니라 문학예술인모두에게 있어서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군인가족들의 평범한 생활속에서 위대한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이끌어내고 그것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영화는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을 떠난 예술이 있을수 없고 생활속에 보석같은 진리가 있음을 다시금 깨우쳐준다.

영화에 반영된 진실한 생활세부들은 모두 선군의 해발아래 내 조국땅에 펼쳐지는 우리의 생활그대로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시대의 혁명가로 성장해가는 우리 군인가족들의 모습그대로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생활, 훌륭한 모습을 화폭에 담은 영화이기에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는 상영되자마자 그렇듯 큰 감화력을 발휘할수 있은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 창작가들로 하여금 주체문학예술을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나는 선군시대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침으로써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석주

새롭고 훌륭한 명작무대를

강성대국승리의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오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가 흥하면 노래소리가 높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날마다 눈부신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시대를 뒤흔드는 강성대국의 《산울림》과 우리 식으로 창조되는 세계적인 명작들…

이 자랑스러운 성과들은 비약하는 새 세기 주체예술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된다.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어모시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충정의 열기를 뜨겁게 부어준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는 혁명적영화예술의 본태를 살리면서 시대와 현실을 훌륭히 반영해나가는 새 세기 주체영화예술의 발전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민이 좋아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이란 어떤것인가를 다시한번 심장깊이 깨닫게 되였다.

우리들은 선군문학예술의 새 력사를 펼치여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예술창조기풍을 철저히 세워 창작활동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내용과 형식의 모든 면에서 더욱 새롭고 훌륭한 강성대국의 예술무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가겠다.

피바다가극단 공훈예술가 김영록

미군측은 우리측이 내놓은 합리적인 제안을 지체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4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진행

【판문점 8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제4차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이 10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먼저 지난 3차례의 쌍방실무접촉과정에 나타난 미군측의 불순한 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군측은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우리에 대한 류례없는 군사적위협소동에 광분하고있다.

쌍방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기간에만도 미군측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의연히 《천안》호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동서해에서 련합 및 단독해상훈련을 강행하였으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등 북침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기로 하였다.

또한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해명하기 위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해놓고 회담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파견하려는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제안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에게 사건책임을 전가하는 너절한 기만극도 서슴지 않고있다.

미군측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출한 그 무슨 《유엔사특별조사결과보고서》라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미군측은 우리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침해와 간섭으로 일관된 제안을 내놓고 고집함으로써 문제토의에 인위적인 장애와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우리측은 미군측이 지금까지의 접촉과정에 드러난 이중적태도에서 벗어나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제안에 긍정적인 자세로 응해나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미 그 부당성이 드러난 《공동평가단》제안을 고집하면서 문제토의에 장애를 조성하였다.

우리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라고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포괄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하여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이 참가하는 조미공동검열단을 구성운영한다.

조미공동검열단 단장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에서 각각 고위장령급을 임명한다.

조미공동검열단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성원들을 포함하는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에서 각각 20~30명정도로 구성한다.

검열기간은 3~5일 또는 필요에 따라 길게 정할수도 있으며 검열대상은 《천안》호침몰사건발생현장과 인양된 함선, 해당 증인 및 물증과 대상들에 국한시킨다.

공동검열은 현장조사, 물증분석, 증언청취, 자료분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로 리용한다.

미군측은 조선인민군측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륙로통행과 신변안전 등 편의를 보장한다.

우리측은 이 제안이 법적으로나 현실적타당성으로 볼 때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 《천안》호사건해명과 관련한 미군측의 최종립장이 확인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제5차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을 차후 일정을 보아가며 판문점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민족재생의 은인을 우러러 터치는 경모의 목소리

해마다 8월이 오면 남조선인민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수십성상에 걸치는 항일대전으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기며 한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일성주석님과 8.15해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망국노의 수난에 피눈물짓던 암담한 시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애국애족의 일념을 안으시고 준엄한 항일혁명의 길에 용약 나서시였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그분께서는 강도 일제를 파멸의 나락에 몰아넣으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다. 8월 15일은 근 반세기에 이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와 겨레의 운명이 구원되고 민족번영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특기할 날이다.》

자주학회의 한 회원은 동료들에게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수난을 겪으며 피눈물짓던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 간고하고 준엄한 항일전에 용약 나서신분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그분께서는 항일전의 나날 령활한 유격전술과 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마침내 조국해방의 위업을 성취하시였다. 정녕 우리 겨레가 그분을 모시지 못했더라면 삼천리강토를 영영 찾을 길 없었을것이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제자들앞에서 《해마다 8월 15일을 맞이할 때면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터쳤다.

《김일성주석님이 아니시였다면 우리 백의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그이는 진정 망국민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구세주이시다.》

해방의 그날 온 삼천리강토에 메아리친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의 환호성,

정녕 이 환호성은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시고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겨레모두의 다함없는 경모의 목소리였으며 세대를 이어 길이 전해지는 위인칭송의 메아리이다.

언제인가 경상남도에 사는 한 로인이 《8.15해방의 감격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겠다. 온 강산이 떠나갈듯 부르고부르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의 함성이 귀전에 쟁쟁히 울리는것만 같고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장군님의 서울입성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나날들이 눈에 선하다. 조국을 해방시키시여 우리 민중의 소원을 풀어주신 그분을 그리는 마음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할것이다.》고 말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이뿐이 아니다.

부산의 한 주민은 《김일성주석님이시야말로 항일혁명투쟁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은인이시다.》라고 절절하게 토로하였으며 서울의 한 대학생은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격정을 터쳤다.

남조선의 어느 한 출판물은 《오늘 남녘땅에서 날로 높아가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절대적흠모의 밑바탕에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고 승리에로 이끄신 주석님에 대한 신뢰의 정이 깔려있다.》고 서술하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사에 수놓으신 항일혈전사는 해와 달이 바뀌고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이다. 우리모두 그분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는 길에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자.》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한 지식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높이 칭송하여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나라마다 건국의 시조가 있고 민족마다 호국의 영웅도 있다. 개국의 창업을 이룩한 시조의 공도 찬연하다. 그러나 그 모든것도 민족이 있고서야 빛이 날진대 다 망했던 민족을 구제한 민족구원의 영웅이야말로 영웅중의 영웅이고 그 위훈은 실로 비길데없이 거룩하고 찬연한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은 말과 글마저 다 빼앗겼던 일제통치의 수난기에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겨레를 기적적으로 구원해주신 조국해방의 은인,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다.》

계속하여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민족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것은 참으로 인간운명개척사, 민족해방투쟁사의 신기원을 열어놓으신 불멸의 공적》이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 남녘겨레들의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더욱 빛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다는 확신으로 하여 더욱 높아가고있다.

인천의 한 교수는 대학생들의 모임에서 이렇게 격정을 터쳤다.

《학생들은 조국해방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조국해방은 우리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이룩한것이며 그 중심에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였다.

우리 민중은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이 땅에 모시려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주석님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려는 념원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우리모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6.15공동선언실현에 떨쳐나서자.》

어느 한 통일운동단체의 성원도 《민족의 장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담아 이렇게 웨치였다.

《우리에게는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신다. 오늘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선군으로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고계시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우리 민족의 장래는 밝고 양양하다.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여 8.15해방이 있었듯이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시여 제2의 8.15해방, 조국통일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모두가 김정일령도자님을 받들어 통일운동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자.》

장윤남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메히꼬정당, 단체들 공동성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13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인민사회당, 사회주의인민당, 사회당, 주체사상연구 메히꼬전국조정위원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김일성주석회고 메히꼬친우협회, 조선통일지지 메히꼬위원회, 메히꼬조선친선협회가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3년전인 1997년 8월 4일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정립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시고 그이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력사적인 8월 4일을 맞으며 메히꼬의 정당, 단체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계속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나라의 통일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하며 반드시 성취하기 위한 근본지침을 마련한 불멸의 총서라고 인정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은 조선통일운동의 근본초석이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과 자주통일사상이 집대성된 불멸의 통일대강이라고 간주한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 친미사대매국노이며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리명박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준렬히 규탄한다.

조선의 자주통일이 조국통일3대헌장에 따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반드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통일을 바라는 세계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조국통일3대헌장의 기치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계속 힘있게 지지고무할것을 호소한다.

적도기네, 핀란드인사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13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와 핀란드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 후안 느꼬 므불라는 2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조선의 통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의 통일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나가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13년전에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으며 2000년 6월에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조선통일의 획기적사변으로 되는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하시였다.

적도기네민주당은 조선인민이 하루빨리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 안띠 씨까 아호는 8일 담화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올해는 핀란드조선협회결성 40돐이 되는 해이다.

핀란드조선협회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그들과의 련대성활동을 더욱 광범히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핀란드의 진보적인사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미국과 리명박《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며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에 즉시 응해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조선중앙통신】

《정권》퇴진투쟁에 나설것을 선언

남조선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 진보련대 상임고문 오종렬,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리소선을 비롯한 인사들이 5일 리명박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100인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리명박《정권》이 집권이후 민주화말살, 민생파탄, 남북대결을 일삼아온데 대해 규탄하였다.

리명박《정권》이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4대강정비》공사를 당장 중지하며 공안탄압과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해 사죄할것을 선언은 요구하였다. 선언은 만일 리명박이 독재통치에 계속 매달린다면 전민중이 현 《정권》퇴진투쟁에 나설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부당한 판결에 항의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6일 피뢰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임병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1심판결그대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뢰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한것으로서 정치적의사표현에 해당된다.》느니 뭐니 하며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들씌웠다.

《전교조》성원들은 파쑈당국의 부당한 판결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단죄하였다.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을 요구

재일조선학생들의 평등한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의 련대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다.

일조우호학생의 회 대표들은 4일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을 즉시 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요청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차별적인 시책이 사회전반에 민족배타의 풍조를 조장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학생들의 배움의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정부가 고등학교지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조선학교지원문제를 책임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날 군마조선초중급학교 교장 안중근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과 총련 군마현본부 일군들 그리고 일조우호련대군마현민회의 사무국장도 문부과학성을 찾아가 일본수상과 문부과학상앞으로 된 요청문과 3400여명의 서명문을 전달하였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지여론이 확대되고있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문제를 옳바로 보고 판단해야 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보수대련합놀음에 깔린 음흉한 기도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대련합움직임이 본격화되여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정당인 《미래희망련대》의 합당놀음은 보수대련합놀음의 한 고리이다.

지난 7월 14일에 있은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서 《미래희망련대》와의 합당안이 의결되였다. 합당이 실현되면 《한나라당》의석수는 《미래희망련대》의 8석이 추가되여 180석에 달하게 된다. 이 두 보수정당의 합당은 이달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래희망련대》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선거공천》때에 친리계의 독단과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한나라당》안에서 떨어져나온 친박계의 일부 집단이다. 당시 박근혜는 《국민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탈당한 자기 계파인물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후 《친박련대》라는 당을 조직하고 《한나라당》밖에서 박근혜를 측면으로 지원해온 탈당파들은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미래희망련대》로 당명을 바꾼데 이어 《한나라당》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선거》활동을 벌리였다. 그런데 갈라졌던 보수패당이 지금 대련합의 구호를 들고 다시 한지붕아래에 살림을 펴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이다.

《한나라당》이 친리계와 친박계로 갈라져 추악한 권력싸움을 벌려온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세종시문제로 하여 두 계파사이에는 극도의 대립관계가 조성되였으며 서로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었다. 이로 하여 《한나라당》내부의 갈등과 위기는 더욱 첨예해졌다. 《지방자치제선거》패배이후 친리계는 《선거유세》에 나서지 않은 박근혜를 걸고들며 패배원인을 친박계에 들씌웠다. 이렇게 대립을 거듭하던 보수패당이 서로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대련합을 시도하고있는것은 실로 부자연스럽기 그지없다.

보수대련합형성을 위해 《전당대회》에서 《미래희망련대》와의 합당을 주요과제로 내세운 《한나라당》 상층부는 리명박과 박근혜의 《화해》를 위한 회담을 8월 중순이후에 가지겠다고 떠들면서 합당완료를 위해 《최고위원회》의 합동회의를 연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다. 한편 당내의 모든 계파소속 모임들을 해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한나라당》의 친리계도 《국무총리》의 후임을 친박계가 맡을수도 있다느니, 박근혜가 《특별한 역할》을 할수도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박근혜와 《미래희망련대》에 추파를 던지였다.

하지만 보수대련합이니, 합당이니 하는 놀음은 하나의 고기덩어리를 놓고 승냥이와 여우가 손을 잡는 격으로서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노린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친리계와 친박계사이에는 권력을 놓고 풀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고있다. 서로가 반목질시하면서 당권장악과 다음기 《대통령》자리를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합당을 한다고 해도 그 내부가 편안치 않을것은 불보듯 뻔하다. 벌써부터 그것을 예고하는 현상들이 표면화되고있다.

실지로 《한나라당》의 친리계는 친박계의 이번 《귀환》을 별로 환영하는 눈치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친박계가 한갖 저들의 의석수나 불구어주고 세력확장에만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 《미래희망련대》의 불만도 크다. 합당을 추진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요구했던 《미래희망련대》에는 겨우 원내 부대표자리 하나만 차례지게 되였다. 새로 조직된 《한나라당》의 《공천개혁특위》의 21명의 성원들을 보아도 대다수가 친리계이고 친박계는 겨우 3명뿐이다. 이로 하여 《미래희망련대》와 《한나라당》의 친박계는 매우 씁쓸한 분위기에 싸여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이 한사코 대련합에 발벗고나서고있는 리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독재권력유지와 동족대결정책의 강화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을 거역해온 《한나라당》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추진해온 《세종시수정안》도 《국회》에서 박근혜세력의 《반란》표가 추가됨으로써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대참패에 당내의 갈등까지 겹쳐 극도의 통치위기에 처한 리명박일당에게는 집권후반기의 권력안정이 심히 위태롭게 되지 않을수 없었다. 게다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반대규탄하는 진보세력의 진출이 강화됨으로써 보수패당은 헤여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리였다. 바빠맞은 리명박일당은 보수세력내부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박근혜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보수잔당들을 긁어모음으로써 집권후반기의 통치지반을 다지고 위기를 모면하며 동족대결정책을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보수대련합실현의 길에 나서게 된것이다.

보다싶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꾀하는 보수대련합은 력사의 반동들의 불순한 정치적야합으로서 자주, 민주, 통일로 향한 시대적흐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반역《정권》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용납못할 반동공세이다.

남조선의 진보세력을 비롯한 각계는 보수패당의 대련합움직임을 결코 보고만 있을수 없다. 보수대련합놀음은 독재타파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을 겨냥하고있다.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대련합움직임에 각성을 높이고 그에 진보세력의 대련합과 대중적인 반보수투쟁으로 맞서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마음먹고 달라붙기탓이다

옹진군 룡천리 일군들

올해에 들어와 옹진군 룡천리가 당면한 농사일에서 앞장서나가고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남보다 잠을 좀 못 자고 고생을 더하더라도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한해농사의 성과는 일군들이 사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직전개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이것을 명심한 농장의 일군들은 새해 정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우선 영농준비를 착실히 하는것과 함께 땅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갔다.

땅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의 일환으로 석회로를 실리가 나게 건설하기로 하였다.

석회로건설공사를 발기했을 때 일부 농장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반신반의하였다. 당면한 농사차비를 하자고 해도 손이 모자라는데 이 공사를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앞섰던것이다.

또 석회로를 건설한다 해도 여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정상적으로 보장한다는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농장의 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석회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이 공사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때로는 낮과 밤을 잊다싶이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 뛰고 또 뛰였다.

이들의 피타는 노력이 있어 생산규모로 보나 질적측면에서 보나 군적으로도 당당히 소리칠수 있는 석회로가 짧은 기간에 건설될수 있었다.

올해 농장에서는 석회로의 덕을 단단히 보고있다.

도시진거름을 확보할 때에도 농장의 일군들은 앞채를 메고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농장에서는 유기질비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 한편 많은 도시진거름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것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도시진거름을 모으는 일도 그러했지만 군으로부터 100리나 떨어져있는 리까지 운반해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러나 농장의 일군들은 하자고 결심하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스스로 이 과제를 맡아나선 리당비서 리동일동무는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우리 당이 제시한 유기농법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갔다.

제일 힘든 모퉁이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사람, 휴식을 모르는 불같은 사람, 이것이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리당일군의 모습이였다. 이렇게 일군들이 앞장서니 어렵게만 생각되던 문제들이 척척 풀려나갔다.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때에도 그러했다.

제7작업반의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실적은 다른 작업반들에 비해 그리 씨원치 못하였다. 이대로 나간다면 적기를 보장할수 없었다. 지체없이 관리위원회일군들과 함께 작업반으로 달려나간 관리위원장 박정숙동무는 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끝내 제날자에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기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하였다.

밀거름이 진해야 열매가 큰법이다.

지난 시기에는 농사에서 별로 전진이 없던 룡천리가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성과속에는 바로 농장일군들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이 진하게 비껴있었다.

하기에 농장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일군들이 마음먹고 달라붙기탓이라고 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일권

일욕심많은 작업반장

문평제련소 연제련직장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작업반 반장 정일룡동무는 일욕심많은 작업반장으로 기업소에 소문이 났다. 10여년전부터 작업반장으로 일해오는 그는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적극 늘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작업반에서는 제품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도자기도 만들어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질좋은 건재품도 만들어냈다.

정일룡동무는 여러건의 과학기술성과도입증도 받았으며 작업반은 기업소뿐만아니라 도적으로도 일 잘하는 작업반으로 소문나게 되였다. 정일룡동무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안아오기 위하여 더욱 헌신분투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계현국

비전향장기수들을 위해 바치는 뜨거운 지성

평양제1백화점 일군들과 봉사자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끓고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평양제1백화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찾았다. 층장 전성숙동무를 비롯한 5층 봉사자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도 기뻤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전화의 불길을 헤쳐온 로병들이다. 불타는 락동강을 도하한 자동차운전사도 있고 1211고지에서 포탄을 날린 포병도 있으며 적구를 수십차례 드나든 정찰병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리산과 태백산 등지에서 맹렬한 군사활동으로 미제와 괴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던 용감한 유격대원들도 있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가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평양제1백화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순간에 한집안식구가 되였다. 비전향장기수들과 그들은 초면이 아니였던것이다. 해마다 건군절을 비롯한 국가적명절때마다 비전향장기수들을 찾아오는 그들이다.

층장동무의 손을 꼭 잡고 석용화동지가 우리에게 《평양제1백화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소행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습니다.》라고 말꼭지를 떼자 《그렇습니다. 이런 인민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정말 위대한분이십니다.》라고 김영만동지가 말을 이었다.

《평양제1백화점 봉사자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온 동네가 다 떨쳐나 명절처럼 흥성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봉사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려는 일념으로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과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의 소행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고광인, 리경찬동지들도 자기들의 심정을 터치였다.

평양제1백화점은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사상과 높은 뜻이 뜨겁게 어려있는 수도의 봉사기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과 공로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적극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혁명가,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불러주시고 내세워주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적극 본받아 상업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려는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결의이고 의지이다.

우리에게 평양제1백화점 부문당비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해전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두고 평양제1백화점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더 굳게 간직하고 상업봉사활동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할데 대한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여 5층 봉사자들도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였다. 말없이 앉아있던 층장 전성숙동무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내세워주신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상봉모임을 자주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투철한 정신세계, 투쟁기풍을 본받아 영예군인들과 전쟁로병들, 시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에서 개진을 가져올데 대해 발기하였다. 그의 새로운 발기는 모두의 열렬한 찬동을 받았다. 백화점초급당위원회는 그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속에서 당과 수령을 받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불굴의 신념을 따라배우는 교양사업을 강화하기로 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전성숙, 송금란동무를 비롯한 5층 봉사자들은 토론을 거듭한끝에 비전향장기수들의 건강회복치료에 좋은 도구들과 장고, 북, 어은금 등 민족악기들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작업반단위로 불이 붙었다. 그들의 사업을 과장 김미영동무가 힘껏 도와주었다. 그는 거기에 자기의 노력과 땀을 아끼지 않았다.

백화점지배인과 초급당비서는 비전향장기수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통하여 사상정신적으로 수양되여가는 5층 봉사자들을 고무격려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군 하였다. 예술소품공연준비가 잘 안되여 애를 먹을 때에도 힘을 주고 말없이 적극 도와주었다. 또한 이 사업에 앞장서고있는 정춘화, 김영금, 김연희, 탁정옥, 박혜영동무들의 소행자료들을 널리 소개하기도 하였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의 사업기풍과 힘있는 정치사업은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이번 전승절에도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한 노래춤을 가지고 비전향장기수들을 찾은 5층 봉사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격전장들에 울렸던 전시가요들을 불러주면서 그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비전향장기수들과 평양제1백화점 봉사자들이 부르는 《우리의 7.27》노래소리가 전승절의 푸른 하늘가로 힘차게 울려퍼졌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정옥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7월 23일 빼루에서 중앙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아메리카지역 준비위원회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빼루준비위원회,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사회혁명당, 공산당 (붉은 조국),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빼루위원회, 빼루조선친선문화협회를 비롯한 정당, 단체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빼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헤나로 레데스마 이스끼에따를 비롯한 연설자들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도발자인 미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인민이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강철의 령장 김일성각하의 독창적인 지략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미국은 여전히 전조선을 지배할 야망을 버리지 않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미쳐날뛰고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조선인민은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등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제도를 영예롭게 고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최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천안》호침몰의 책임을 사회주의조선에 전가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침략전쟁의 구실을 얻기 위해 책동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세계앞에 인위적으로 조작한 계획적인 도발책동임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고 까밝혔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조선은 날을 따라 자기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선의 존재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혁명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조선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은 곧 빼루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은 빼루인민의 위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연설을 마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만세!》 등의 구호들을 높이 웨쳤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오늘의 평양》을 감상하였다.

⁘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이란, 우루과이신문이 기념글을 실었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 7월 25일부는 《조선, 승리의 7.27》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7월 27일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우리 인민이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국의 기도를 파탄시킨데 대하여, 전후 미국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같은 날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뚜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7월 27일, 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우리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포로된 미군의 몰골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옹근 한면에 편집하였다.

신문은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가 저들이 일으킨 조선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년대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1953년 7월 27일 조선의 곳곳에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다음날에는 전승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전하였다.

《영원한 승리의 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문은 우리 공화국이 조미대결전에서 련이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력사적사실자료들을 들어 소개하였다.

신문은 《미국의 첫 군사적 참패》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3년후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군사적참패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서술하고 전쟁시기 미제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상상할수 없는 잔인한 만행을 감행한 립증자료들도 렬거하였다.

신문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57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인민은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평화와 사회경제발전을 이룩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강조하였다.

⁘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협회가 7월 23일 기념블레찐을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조선의 남쪽땅을 강점한 미제는 저들의 지배권을 전조선으로 확대할 목적밑에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3년간의 전쟁에서 미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다.

미제는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날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위대한 승리의 날로 기록되였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냄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전쟁의 페허를 가시고 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인 나라로, 그 어떤 제국주의강적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불패의 군력을 갖춘 사회주의보루로 일떠세웠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밑에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까지 마련한 조선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어떻게 미국의 책동에 맞서 나라의 리익을 고수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감으로 되고있다.

정전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조선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결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지역이다.

미국은 57년전의 패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조선을 반대하는 모든 군사적위협과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핀란드조선협회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며 조선이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본사기자

군국주의《독사》의 위험한 발작증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군사적광란으로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지고있다. 이것은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일본반동들은 때를 만난듯이 부산을 피우고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일본정부소속 한 연구집단의 《새로운 안보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놓고보자.

일본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 군국주의세력을 대표하는 두뇌진으로 유명짜한 이 연구집단이 내놓은 《새로운 안보정책》관련 보고서에는 스쳐보낼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실례로 종전에는 비밀리에 승인되였던 미국핵무기의 국내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것,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싸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형태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것, 미국이외의 나라들과도 군사장비품의 공동개발및 생산을 진행할수 있도록 《무기수출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것 등이다. 이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표방해온 《비핵3원칙》과 《무기수출3원칙》을 완전히 뒤집어엎으려는 군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의 발로이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그것이 올해안으로 일본정부가 개정하게 될 《방위계획대강》의 리론적기초로 된다는것이다.

일본방위성의 한 고위인물은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해공군전투력을 증강하고 국방중심을 중국과 대치하고있는 서남방향으로 이전하는것 등을 중요목표로 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새 《방위계획대강》은 앞으로 일본이 약 10년동안 군사분야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문제들을 명문화하는 침략적인 군사계획문서이다. 이 《대강》에 의해 일본의 군사정책의 주요내용과 중심방향, 전략적목표 등이 규정되고 실행되게 된다. 일본반동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을 보다 군국주의적인 내용들로 뜯어고치려는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책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십분 짐작할수 있게 한다. 보는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이 이제는 어벌이 커질대로 커져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군국주의책동에 매달리고있다.

그들이 《새로운 안보정책》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비핵3원칙》의 핵무기반입금지조항 재검토문제를 들고나온것은 군국주의《독사》의 핵무장화발작증이 얼마나 극심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원래 일본의 《비핵3원칙》은 빈껍데기이다. 일본은 기만적인 《비핵3원칙》의 병풍뒤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눈감아주는 대신 상전의 묵인, 비호밑에 비밀리에 핵무장화책동을 추진하여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도수를 넘어 그 병풍마저 집어던지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반입을 허용하며 핵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려 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힘으로 《아시아의 맹주》가 되려는 파렴치한 야망을 실현하려고 침략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성이 해상《자위대》잠수함을 증강하기로 결정한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이것은 일본이 1976년 《방위계획대강》발표후 처음으로 내린 잠수함증강결정으로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조치이다. 일본은 초음속공대함미싸일, 신형어뢰개발 등 해상작전능력강화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이 섬나라인 일본에 있어서 해외침략을 노린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의 해외침략에서 첫째가는 공격목표는 우리 나라이다. 일본반동들이 《새로운 안보정책》관련 보고서에서 《적기지공격능력》의 필요성을 운운한 사실이 그것을 립증해준다. 일본반동들의 《적기지공격능력》타령은 곧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념두에 둔 재침론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일미군사동맹이라는 전쟁지레대에 의거하여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그들이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의 국방중심을 바꾸려 하고있는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무력의 군사작전범위가 일본경내를 벗어나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일제의 피에 절은 침략력사가 재현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아시아정복의 검은 속심을 품고 무력증강과 핵무장화책동에 광분하는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적발작증은 매우 위험하고 엄중하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그들의 군사적광기는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격의 자살적망동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부나비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전쟁히스테리적발작증을 털어버려야 한다.

전 영 희

체스꼬단체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을 규탄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가 7월 26일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세계평화애호 및 진보적인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은 조선동해에서 조선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은 이번 군사연습외에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련합훈련과 함께 련합반잠훈련을, 8월말~9월초에 련속 여러가지 련합해상훈련을 벌리려고 계획하고있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노린 로골적인 도발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념원으로부터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은 조미회담과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국제사회앞에 자기가 한 공약을 다 뒤집어엎고 전쟁연습강행과 제재를 통한 압박강화에로 나가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단호히 규탄하며 이를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을 단죄

꾸바외무상 브루노 로드리게스 빠릴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책동을 단죄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이 지역나라들에 무력을 계속 주둔시키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의 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특히 꼴롬비아에 대한 미군사기지전개와 미해군 제4함대의 배비,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위한 미국의 군비증대 등은 그 엄중성을 실증해주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본사기자

반미감정을 눅잦혀보려는 위선적인 놀음

얼마전 미국무장관 힐러리가 파키스탄을 행각하였다. 기본목적은 어성버성해지고있는 파키스탄과의 《관계개선》이였다. 그래서인지 그는 짬만 있으면 파키스탄의 반테로노력을 평가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에 대해 운운하였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는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것이 파키스탄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미국에 대한 의심을 가시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언행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속에서 화제거리로 되고있다. 힐러리의 말속에 파키스탄인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는 대신 대미감정을 좋게 가져달라는 일종의 구걸같은것이 깔려있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힐러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데는 그럴만 한 까닭이 있다고 하고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들어가면서 그것을 설명하고있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저들의 《반테로전》강행에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여기고있다. 미국은 9.11사건이후 파키스탄이 테로와의 투쟁을 선포하자 《반테로전》의 《동반자》라고 추어주며 이 나라에 《원조》를 제공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웠다. 언제인가는 파키스탄을 《미국의 주요비나토맹우》로 부르기까지 하였다. 미국의 《호의》에 대한 대답으로 이전 파키스탄정부는 미국의 《반테로전》에 어느 정도나마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리용하여 파키스탄에 훈시질까지 하려들었다.

그러나 최근년간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파키스탄인들속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그것이 정계의 일부 인물들속에서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미국이 사태수습을 위해 뛰였으나 형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감에 따라 파키스탄인들의 대미감정은 더욱 나빠졌다.

얼마전 미국의 퓨연구쎈터가 파키스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과반수가 미국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미국은 만일 저들이 이전과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상서롭지 않은 일이 생길수 있다고 타산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별로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다. 결국 할수없이 힐러리가 파키스탄을 행각하여 늘 하던 수법대로 《원조》라는것을 내들고 그것이 《관계개선용》이라는 공식립장을 표명하게 되였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서리를 맞고 후줄근하게 되였다고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일은 그렇다치고 미국이 파연 《원조외교》로 파키스탄인들의 환심을 살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이번에 힐러리는 파키스탄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있는 미국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하루밤사이에 가셔질수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언제인가는 그들이 파키스탄의 복리와 번영을 담보하고있는 미국의 《진심》을 알아주게 될것이라고 흰소리를 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 도리머리를 치고있다. 저들에게 필요할 때에는 곰살궂게 놀며 다가붙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차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파키스탄인들도 이것을 알고있으며 미국을 믿지 않고있다고 한다. 파키스탄인들은 미국이 좋지 못한 전적을 가지고있고 또 그들의 《원조》라는것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해 잘 알고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조》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이번에 힐러리는 파키스탄의 개발계획에 5억US$를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자금은 새로운것이 아니라 이미전에 미국이 앞으로 해를 두고 가면서 파키스탄에 지원해주겠다고 한 자금중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도 가혹한 부대조건이 붙은것이다.

미국은 《원조》를 주는 대신 저들이 핵부문에 관여하는 파키스탄인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들과 직접 만날수 있도록 하며 파키스탄의 안전무력이 국내문제들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그런가하면 미국은 파키스탄—이란가스수송관계획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부대조건들은 파키스탄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더우기 파키스탄의 령공을 란폭하게 침범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미군의 끊임없는 무인기공격이 파키스탄인들의 원성을 크게 높여주고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미국이 낯내기식《원조》로 파키스탄인들의 마음을 쉽사리 돌려세우기는 어려울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학 남

미국과 서방의 모략책동을 배격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5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미국과 서방의 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과 서방이 보다 악랄한 대이란제재음모를 꾸미고있으며 TV방송을 리용하여 이란과 지역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으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란인민의 기상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만일 반대로 미국정부가 그러한 제재와 선전깜빠니야의 대상이 된다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말것이라고 조소하였다.

차별적인 이주민법철회를 요구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5일 미국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리조나주의 이주민법을 당장 철회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편지는 이 법이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계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확대시키고있다고 하면서 현 미행정부는 인종격리와 노예제도 등 과거의 력사적오유를 경계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볼리비아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이주민법을 반대하여 국제적인 깜빠니야를 벌려나갈것이라고 편지는 밝혔다.

아랍나라들사이의 협조강화를 호소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2세와 사우디 아라비아국왕 아브둘라흐 빈 아브둘 아지즈가 7월 30일 회담에서 아랍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들은 현시기 제기되는 도전들에 대처하여 아랍나라들이 협조를 계속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중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들의 권리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자기 나라들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스라엘의 공습만행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의 남부와 중부 등 지역상공에 날아든 이스라엘군전투기들은 주민지대들에 여러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9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부상을 입었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산과부문에서 의료봉사사업을 강화하여 산모 및 갓난애기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들고있다.

또한 3만 2 000여명에 달하는 보건일군들로 세대별 의료봉사체계를 세워놓고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있다.

민주꽁고에서

민주꽁고에서 소년로동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년간 까땅가주, 동부까싸이주의 광산들에서 1만 1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소년로동에서 벗어났다.

나라에서는 가까운 기간에 소년로동자수를 25% 줄일것을 계획하고있다.

메히꼬에서

메히꼬에서 올해 6월에 원유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 증가하였다.

이 기간 하루 원유생산량은 146만bbl에 달하였다.

뻬루에서

뻬루에서 A(H1N1)형돌림감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8월초현재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들을 포함한 250만명의 주민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신형독감환자와 사망자수가 현저히 줄어들고있다.

본사기자

기네의 보크사이트가공공장

수단의 정치적안정을 위해 노력할 립장 표명

아랍국가련맹의 한 고위관리가 2일 기자회견에서 수단의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련맹의 립장을 밝혔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단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결정을 또다시 채택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다르푸르문제해결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으로 락인하였다.

아랍국가련맹은 수단에서 평화과정이 진척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정부의 투쟁을 지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끝없이 울려퍼지는 《중국인민지원군가》

오늘도 압록강의 푸른 물은 조중친선을 노래하며 유유히 흐르고있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압록강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면 누구라 없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노래 《중국인민지원군가》를 씩씩하게 부르면서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공동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을 추억하게 된다.

얼마전 중국의 《인민일보》는 《항미원조전쟁기념조각상들이 압록강반에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항미원조전쟁 60돐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혈육을 떠나보내며〉, 〈조국을 떠나며〉라는 주제의 조각상들이 7월 5일 오후 항미원조전쟁관련 유적인 압록강연와철교와 압록강사하구철교에 도착하였다.

조각상을 세우는 목적은 항미원조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해서이다. 단동시의 중요한 홍색관광자원의 하나인 항미원조전쟁관련 유적들은 단동에서의 홍색관광의 중요지점으로 될뿐아니라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웅주의교양의 중요한 소재로 될것이다.》

압록강연와철교와 사하구철교는 1950년대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전선에 참전하는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압록강도하와 작전물자수송의 중요통로였다.

이 조각상들을 창작한 중국 로신미술학원 교수 조덕리는 《조각상들을 설계하고 제작, 완성하는데 3개월나마 걸렸다. 나는 당대 군인들과 단동인민들에 대한 깊은 경의의 마음을 안고 작품을 완성하였다.》고 말하였다.

단동시에서는 앞으로 《영웅도시, 영웅인민》의 특색을 충분히 형상한 조각상들을 여러곳에 세울것을 계획하고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전선에 달려나와 우리 군대와 인민과 어깨겯고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결전장에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정은 각별하다.

중국의 정주에는 《항미원조로병의 집》이 있다. 이 집은 중국인민지원군 로병 장증덕의 딸 장애란이 꾸린 집이다. 아담한 침실들과 응접실에 들어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은 응접실에 전시된 항미원조기념품들을 보면서 조선전선참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본다. 이 기념품들은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들이 기증한것이다.

장애란은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로병은 누구든지 정주에 오면 무료로 숙식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항미원조전쟁 60돐을 맞으며 더 많은 로병들을 찾아내고 항미원조기념품들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항미원조로병의 집》을 찾는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로병들은 비록 초면이지만 밤이 깊도록 잊을수 없는 전투의 그 나날들과 전우들을 추억하면서 《중국인민지원군가》를 비롯하여 전화의 나날에 부르던 노래들도 함께 부른다.

어찌 이들뿐이랴. 지난해 중화인민공화국창건 60돐과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을 맞으며 중국의 락산대불극장에서 조선영화음악단이 출연하는 조선영화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무대에서 《중국인민지원군가》가 울려나오자 1 000여명의 관중이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불러 대합창으로 번져졌다.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 조선전쟁시기 심장에 불을 달아주고 원쑤격멸의 결전장으로 고무추동하던 《중국인민지원군가》는 오늘도 중국의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58돐을 기념하여 장춘시에서 진행된 영화특별상영회에서도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하였던 로병들은 중국예술영화 《영웅적인 아들딸들》을 관람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1964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중국인민지원군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조선전선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의 한 련대가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영웅적으로 싸운 내용을 주제로 한것이다.

중국인민은 지난날 공동의 원쑤인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싸움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과 피로써 맺어진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있다.

중국 국방부장은 조선을 방문하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60년전 중국인민지원군은 당중앙과 모택동주석의 부름을 받들고 조선전쟁에 참가하여 피어린 전투를 벌려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중국의 강대한 힘을 과시하였다.

중국당과 정부, 인민은 지역의 평화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싸우다 영용하게 희생된 지원군렬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국가의 평화적발전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굴함없이 싸운 지원군장병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위대한 애국주의, 혁명적영웅주의, 국제주의정신은 중화민족의 고귀한 정신적재부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지원군렬사가족대표단단장은 평양에서 진행된 환영연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조선을 방문한 목적은 모안영동지를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9명의 동지들을 성묘하고 선렬들을 추억하기 위해서이다.

후대들이 지나간 력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평화적환경을 귀중히 여기며 고향땅을 잘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세운 위훈은 압록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본사기자 조 성 철

ㄱ-01143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